

더불어 사는 다문화, 함께하는 한국교회



세계는 지구촌으로 변한 지 오래다. 세계를 하나의 마을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과거 우리는 해외로 나가는 것을 아주 큰 일로 여겼다. 내가 유학을 갔을 때는 1989년이였다. 당시만 해도 여권을 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처럼 여겨졌다. 독일에 가려면 미국 앵커리지를 지나 21시간, 만 하루를 비

행기에서 보내야 했다. 더구나 비행기값은 요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다. 그러나 오늘날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국내 여행 다녀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특권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그만큼 해외에 가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된 것이다. 여기에 통신의 발달은 세계를 아주 가깝게 만들었다. 과거 독일에 편지를 보내

면 일주일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다가 팩스라는 기계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놀라웠다. 그러던 것이 인터넷을 통해 독일에서 한국 신문을 보게 되었을 때는 가히 혁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메일이 보편화되면서 실시간으로 문서들이 오가게 되었다. 그렇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은 내가 독일에 있었던 10여 년 사이에 수십 배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속도와 효율성으로 세계는 하나의 마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지구촌 시대에 한국은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가 되었는데, 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민족주의이다. 나는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한다.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의식화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민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 혈통으로 이어진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산업화 시대, 즉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측면이 크다. 그전까지는 그런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사대주의가 대세였다. 역사를 보면 양반들은 조선이 소중화, 즉 작은 중국이기를 바랐다. 그래서 우리말인 한글을 만들어 놓고 500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았다. 오랑캐의 말이고 글씨라고 여기면서 말이다. 일제시대에도 민족의 독립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민족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대표적 민족주의자였던 김구 선생은 그 시절 '사해동포주의'를 주장했다. 전 세계가 동포라는 것이다. 함석헌 선생은 온 인류가 아담이라는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구별하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이때만 해도 민족주의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유신시대와 산업화 시대에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어릴 시절 줄줄이 외우던 국민교육헌장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에는 민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지구촌 시대에 사람들이 돈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났다. 언어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전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또는 생존하기 위해 왔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체가족이 되어야 한다.

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은 어언 40년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민족주의 교육은 우리의 생각과 삶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선동은 결국 이 작은 나라에 자부심을 만들어 주었고, 그 원동력은 산업화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민족주의의 이러한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이 필요하다. 지구촌화된 세계에서 이러한 민족주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민족주의가 배타적이고 그것이 결국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는 과거 우리의 힘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자존감을 높여 주었다. 그러나 힘이 생기고 가진 것이 많아진 현실에서는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 세계를 하나의 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사이버 민족주의로 무장한 채 중국, 일본과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배타적 민족주의가 가져온 폐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한국교회도 이러한 민족주의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 중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다. 한국교회는 한때, 특히 조선시대 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나라의 어려움에 함께하면서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 또 6.25를 겪고 공산주의의 박해를 받으

며 반공 민족주의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교회에는 자연스럽게 민족 교회라는 정체 의식이 생겼고,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더 나아가서는 은연 중에 우리 민족이 동양의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다. 이미 꽤 지난 이야기지만 과거에는 조선(Chosen)이라는 국호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증거를 얻기도 했다. 우리는 choose의 과거분사인 조선, 즉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설교 내용이 선포되었다. 또 흰옷을 즐겨 입는 우리 백의민족은 천사의 민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기도 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만들어 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신앙까지 덧입혀서 그 모양을 더욱 강화해 왔다. 성경적으로 볼 때 민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무너졌다. 예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민족 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유효한 것이 되었다. 십자가의 은혜는 시대를 넘어 결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에 까지 미쳤다. 그 덕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1800년 만에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오늘날 그 복음은 이 땅에 편만해지게 되었다. 또 우리 믿음의 선생인 바울은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빛진 자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자신을 빛진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 유효하다고 하였다. 즉 그는 이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러한 빛진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간헐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를 향해 빛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과거 70년대와 80년대에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유야 수도 없이 많지만 내가 볼 때 산업화가 한몫 했다.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든 것이다. 유교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차지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이 이 사회의 전형(Prototype)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오면서 기본인 가족을 떠나게 되었다. 유교에서 가정은 유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함께 담은 근본체이다. 그런데 가족을 떠나니 이러한 것들이 타지에서 흔들리게 되었다. 더군다나 사회는 산업화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고아와 같이 된 것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는 대체 가족의 역할을 감당했다. 가족을 떠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교회의 소규모 공동체들이 감싸 안은 것이다. 이들은 관혼상제에 함께했고, 서로 기도하며 상담하고 지도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관을 제공했다. 흔들리는 이들은 교회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이해했다. 가족을 떠나 도시에서 받아들여야 할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윤리의 문제까지 이들은 이 집단에 소속됨으로 해결했다. 이와 더불어 교회는 쉬운 설교로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 주었다.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고, 그 뜻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인지를 아주 쉬운 언어로 전달한 것이다. 그러면 교인들은 바로 이 새로운 가치관을 실천하며 살면 되었다. 바로 이러한 대체가족과 준거집단으로서의 교회는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밀려온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지구촌 시대에 사람들이 돈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사람이 몰리는 것과 같이 더 넓은 세상에서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것이다. 이들은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났다. 언어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전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또는 생존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이들도 우리가 겪었던 과정을 겪게 된다. 아니 더 급격한 변화를 더 심하게 겪게 된다.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이들에게 대체가족과 준거

집단을 제공해야 한다. 가족의 친밀함과 가치관의 재 구성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한국교회가 감당한다면 과거 우리가 부흥을 경험했듯이 우리 가운데 온 외국인들 가운데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선교는 과열되어 있다. 부동산 버블을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에서 선교는 버블이 될 공산이 있다. 파송 선교사 2만 명, 많은 숫자를 보냈지만 이들을 위한 시스템은 부족한 현실이다. 만약 파송된 선교사들이 임기를 마치고 들어오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내가 아는 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 오신 후 고시원에서 딸과 함께 지내고 계신다. 열정과 순수 하나로 선교지를 향해 달려가셨는데 이후에 돌아오니 정말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과열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교인들이 세계에 대해 열린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국교회는 세계를 품은 것 같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의 세계화 지수를 측정해 보면 결코 높지 않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서로 불편해하지 않고 신앙의 공동생활을 함께할 수 있을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보내는 선교에 치중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찾아오고 있다. 받아들이는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더구나 이들은 폐쇄된 공동체에서 벗어나 열린 상황으로 나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하고 있으며, 열악하고 생소한 상황에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좀 더 쉽게 복음에 응답하고 있다. 여러 곳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이나 동남아 지역 등에서 종교적 이유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은 이 시대 새로운 선교의 장이 될 것이다.

거룩한빛광성교회에는 베트남 선교부가 있다. 꽤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 베트남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축구 리그에 베트남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운동을 하는 동안 이들은 가까워졌다. 교인들은 이들에게 유니폼과 축구화를 제공하기도 하고, 의료보험이 없는 이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산 교인들을 연결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축구장은 자연스럽게 선교의 장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은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이며 동시에 기회이다. 선교의 방향을 조금 틀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과 한국인으로 자리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해질 것이다. 더구나 통일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다문화는 열린 사회를 향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수 있다. 통일이 큰 쓰나미가 아니라 변화의 파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이 다문화 시대에 선교의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 가느냐가 관건이다. 나는 다문화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열어 주신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복음의 순수함과 열정을 되찾는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



글 |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로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대표이자 기윤실 본부장, 본지 편집 위원이다. 저서로는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등이 있다.